

신 외계인 개념

교육의향



김명희
아동문학가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 아이가 수업 중에 종이접기를 한 것을 내 보였다.
“종이접기 아니니?”
“그러니까 이에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요?”
우리가 흔히 접었던 종이접기보다 좀 복잡하게 보였다.
“무엇이라고 접은 거니?”
종이접기가 종이접기지 나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이것이 요즘 아이들 세계에 유행하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예요.”
나는 낯선 이름에 좀 당황하여 되물었다.
“상어 몸에 나йки 신발을 신은 모습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확실하게 알 거예요.”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브레인랏(brainrot)으로 한마디로 카메라라는 것이다. AI로 생성된 조악한 동물과 사물의 합성체라고 나왔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크리처를 생성하고 거기에 이탈리아어를 기반으로 말장난으로 명명된 것으로 네이밍과 설정을 붙여서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는 그렇게 생성된 캐릭터들을 가지고 vs 구도 놀이를 하는 밈들을 일컫는 총체로서, 2023년부터 떠오른 Brainrot을 문서 제목처럼 표방하는 밈이다.” 라고 설

명 되었다.
한 마디로 비정상적인 것에 흥분하는 요즘 아이들의 생활인 것이다.
한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 하여 독재정치를 펴려고 한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다른 돌팔구를 찾으려고 별 희한한 것에 광분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옛날 노예사회에 편히 살던 인물이었다. 그들은 노예 제도의 부당성에 괴로워하기도 하는 오히려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폈으며, 전제 독재 구주를 섬겼고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르쳤다. 그들은 또 사상과 물질을 별개의 것이라고 가르쳤다. 어디 그것뿐인가. 그들은 하늘에서 지구를 분리시켰다. 이것이 서양의 정신 세계를 2000년 이상 지배해 온 분리 사상이다.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믿었던 플라톤은 자신의 정치관을 우주관에 연결하기 위한 논지에서 사실 노예의 비유를 심분 활용하였다.
그는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데모크리토스가 불명의 영혼이나 불명의 신 또는 피타고라스학파의 신비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지식 전체를 73권의 책에 집대성했다는 데모크리토스의 저작물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전해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크리토스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단편적이고 지엽적 내용의 것들뿐이다. 그것도 주로 윤리학에 관한 내용이고 한 다 리 걸쳐 전해진 간접적인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어른들은 진정한 어른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에만 머물려고 했던 것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추구하는 세상. 어른들은 심분 이해 하고 있거나 하는 지.
태양계 바깥에서부터 생명 세계와 문명사회를 찾으려는 인류의 원초적 꿈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실현되고 있는지 가늠하고는 있는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 정부가 생겨난 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다. 우리 아이들의 수준은 높아만 가는데 얼마만큼 부합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를 기대해 본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은 고대사회가 안고 있었던 내재적 모순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요즘 아이들은 신 외계인이다. 지능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쪽은 어른들이다. 어른들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난제들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화두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조망하게 될 때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찾아 지리라고 본다.
아이들은 이미 우주 속에 한 생명체로 성장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자기 안위와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원시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참으로 염려스럽지만 새 정부에 기대해 마지않는다.

社說

금호타이어 화재 한달, 복구·재건 침묵 안돼

고용·지역경제 위기 직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화재로 가동을 멈춘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구나 재건에 대한 방향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2500여 명은 여전히 자택에서 대기 중이며, 일부 비정규직만 식당이나 철거 지원 인력으로 출근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리적인 피해보다도 복구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회사는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재건 일정은 물론 공장 이전이나 해외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화재 사고로 끝날 수 없다. 금호타이어는 광주를 대표하는 제조업체이자 지역경제의 중추다. 하루아침에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천 명의 일상이 끊겼으며, 협력업체 생태계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회사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유럽 공장 증설 계획과 맞물려 국내 공장 복구의 지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지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 공장은 복구되는가, 이전되는가. 그 시점은 언제이고 고용 승계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 대기업이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구성원을 상대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은 생계 걱정을 넘어 해고에 대한 두려움까지 떠안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 역시 공장 재건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구 지침 미확정’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는 단순 기업의 사적 문제를 넘어선 대규모 고용 위기이며, 지역경제의 중대한 변수다. 중앙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검토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광주시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태도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계획과 행동이다. 금호타이어는 지금 당장, 광주공장 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간이 멈춘 곳에서 사람들의 삶마저 멈추게 해선 안 된다.

빛만 늘어가는 농촌 이대로 방치할텐가

최소한 생산비는 맞춰줘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마늘 재배 농민들의 한숨이 크다. 인건비는 오르고 있지만 날씨 때문에 작황은 좋지 않고, 수매가마저 턱없이 낮아져 빛만 늘어가고 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안타깝다. 농업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마늘과 양파 등 한창 수확에 들어간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에 따르면 수확이 한창인 무안의 마늘 계약재배 수매가는 1kg당 35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마늘 생산비는 1kg당 3445원이었으나 농민들은 인건비 등 부수비용을 더하면 실제 생산비는 4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4-6월 평년보다 낮은 기온 탓에 마늘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졌고 통마늘의 지름이 상품 기준인 5cm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도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낮은 단가에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육 부진,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까지

야말로 삼중고가 아닐 수 없다.
농업과 농촌의 희생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 농가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당장 최근 몇 년 사이 채소류는 물론이고 쌀값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도 최근 배추와 당근 등 채소류의 가격이 최고 50%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수요와 공급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분간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 가능성이 낫다는 것도 문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태풍과 폭염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걸림돌이다.
지금 농촌은 마늘과 양파 등 채소류의 수확이 한창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촉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과 함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가격왜곡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소한 생산비는 맞춰 주는 것이 농업과 농민에 대한 배려이면서 의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 서석대

요즘, 뉴스 보기가 즐겁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대통령 한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게 새롭다고 한다. 저러다 쓰러질까봐 무섭다고 하면서도 ‘퇴근 안하는 대통령’ 그저 신기하다고 한다.
언론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권 바뀌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아왔다. 패턴은 늘 비슷했다.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들어오면 언론들 상당수는 밀월 기간을 즐겼다.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남일보야 광주에 있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성향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에서는 글 잘 못 쓰면 돌맞는 것은 당연지사고, 지역민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면 “거기 배례 부렸어”라는 지적구가 바로 날아온다.
이 지역이야 5·18을 경험하면서 독재, 혹은 독재 비슷한 것에는 체질적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이들이 태반이고, 그들을 독자로 둔 신문사에게 지역민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사실 우리의 자량이다.
광주, 전남이 아니라면 지난 12월 계엄때부터 목숨을 걸고 기사를 쓸수 있었겠는가. 덧붙여 전남일보의 논조는 독자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계몽’이라는 턱 없는 객기는 태생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계몽이라니. 21세기에!
그런데 일부 미디어들은 정말로 계몽스럽게 표현한다.

마치 “몰랐지? 이런 것도 모르니?”라면서 대단한 것을 내밀 듯 쓴다. 읽어보면 별거 없다. 나무의 뒷면에 있는 작은 등걸을 두고 그 나무 전체를 욕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지라고 그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활자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웃기기도 하다. 전국의 지방지가 지원받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체 금액이 서울 지역 미디어 한 곳 지원금액보다도 적은 상황에서, 정작 혜택이 적은 지방지가 국민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아등바등 하고 있다는 것 말이다.
말이 길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판단 기준은 대중이다. 대중들이 환호하고 바라는 것이 미디어가 다뤄야 할 핵심이며, 대중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 박수를 쳐주는 것도 미디어가 할 일이다. 미디어는 고고한 학이 아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펠리컨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말이다. 그러니 ‘기레기’란 단어를 쓸 때는 그런 미디어들을 특정해줄길 바란다.
그래야 지목 당하지 않는 미디어들은 자존감을 다독이며 앞으로 주눅 내가지 않겠는가. 새 세상에서 독자님들의 응원을 바란다.

노병하 디지털콘텐츠부장 겸 사회부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